KB증권

FIRST TO THE MARKET

더 많은 리포트 보기

2025년 9월 16일

반도체 / 전기전자 Analyst 김동원
jeff.kim@kbfg.com
AI / 로봇 Analyst 이의진
ujlee@kbfg.com
연구원 강다현
dahyun.kang@kbfg.com

삼성전자 (005930)

GDDR7 최대 수혜

엔비디아, 삼성 GDDR7 채택 확대

—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1b D램 기반의 GDDR7 모듈 채택을 확대할 전망이다. 이는 삼성의 GDDR (16Gb)이 엔비디아 RTX 50 시리즈 GPU 탑재에 이어 RTX 프로 6000 블랙웰에도 삼성 GDDR7 (24Gb)이 탑재되고, 엔비디아가 중국 수요에 대비해 준비 중인 AI 가속기 B40과 2026년 루빈 (Rubin) CPX에도 삼성전자의 GDDR7 탑재가 유력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GDDR7은 대역폭과 전력 효율이 기존 제품대비 30% 개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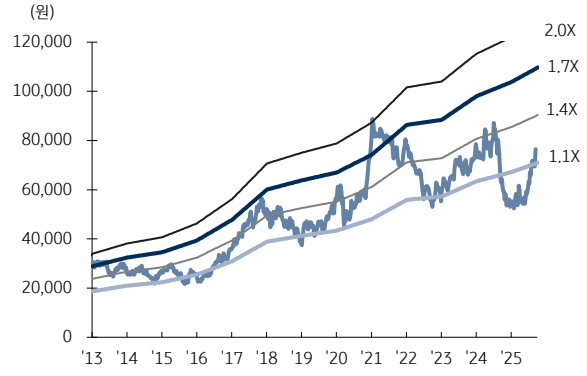
GDDR7, 삼성 그래픽 D램의 1/3

— 3분기 현재 GDDR7은 삼성전자 전체 그래픽 D램의 1/3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에 GDDR7 공급 확대를 대폭 요청하고 있어 향후 삼성전자는 평택 공장에 GDDR7 생산능력을 기존대비 +2배 이상 증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DDR5 대비 가격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삼성의 GDDR7은 높은 수익성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GDDR7 출하 확대는 향후 D램 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견인할 전망이다.

엔비디아 GDDR7 최대 수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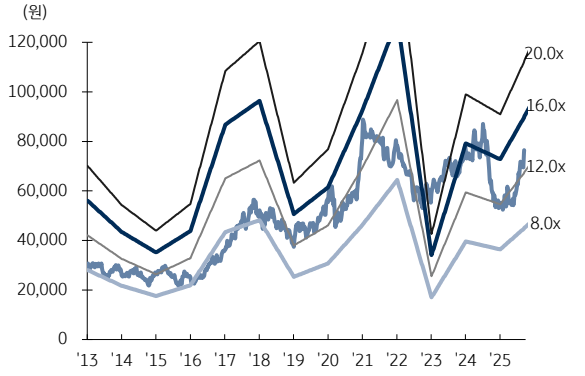
— 2026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① 메모리 생산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② AI 메모리 수요가 HBM 중심에서 LPDDR5X, GDDR7 등으로 큰 폭 확대되고, ③ 2018년 클라우드 성장 이후 7년 만에 일반 서버 교체 주기까지 도래하면서 공급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범용 D램과 HBM4의 풍부한 생산능력을 확보한 삼성전자는 내년 D램 공급 부족의 직접적 수혜가 기대된다. 특히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GDDR7의 독점적 공급 지위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쟁사들의 경우 1b D램의 생산능력이 대부분 HBM3E에 할당되어 있어 엔비디아 요구에 적기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림 1. 삼성전자 12M forward P/B 1.19배



자료: 삼성전자, KB증권 추정

그림 2. 삼성전자 12M forward P/E 13.6배



자료: 삼성전자, KB증권 추정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삼성전자]의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을 위한 위탁 증권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삼성전자]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자 및 유동성공급자 입니다.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